코로나19 현재 및 향후 중국정부 대처 방안

(KIC중국, 2021.6.4)

□ 중국공정원 "흡입형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신청"

중국 과기부와 상하이시가 3일 주최한 '2021 푸장(浦江)혁신포럼' 전체회의에서 천웨이(陳薇) 중국 공정원 원사가 연설을 통해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이 필요없는 백신과 비주사형 백신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천 원사는 "현재 백신은 모두 주사를 통해 접종하지만 뿌려서 흡입하는 방식과 같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접종이 가능하다"며 지난해 8월 최초로 비주사형 백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9월 29일 우한(武漢)에서 흡입형 백신 임상시험을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천 원사는 뿌려서 흡입하는 방식의 백신은 주사약 백신 용량의 5분의 1만 투여하면 되고, 1바이알(병)씩 포장할 필요가 없어 백신 바이알의 병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현재 맞는 백신을 (코에) 뿌려 흡입하면 점막의 면역도 자극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이미 임상 확대 문서에 승인했으며, 현재 우리는 긴급사용을 신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분사식 흡입 면역은 분무기로 백신을 미세 입자로 쪼개 호흡을 통해 흡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호흡기와 폐에 투여함으로써 점막의 면역을 자극한다. 이런 면역은 근육주사로는 불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근육주사를 통한 코로나19 백신은 체액면역과 세포면역만 유도할 수 있다. 분사식 흡입 방식을 사용한 면역은 통증이 없고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人民网, 2021.6.4.)

□ 中 "기원 추적은 정보 요원이 아닌 과학자에 의존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둘러싸고 미국과 영국이 '실험실 유출설'을 재점화하고 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5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기원 추적 과정이 정치에 의해 오염됐다"면서 "모든 사람이 기원 추적이라는 과학의 문제를 정치와 분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논평을 발표했다.

왕 대변인은 "바이러스 기원 추적은 과학의 문제이므로 정치화되어선 안 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에 낙인을 찍고 바이러스에 꼬리표를 붙이는 언행과 기원 추적을 구실로 특정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 WHO 전문가의 기원 추적 연구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심지어 과학자가 아닌 정보 요원을 동원해 바이러스의 기원 조사를 주도하도록 부추기는 언행을 끊임없이 보았다"며 "미국의 이런 기원 추적 정치화 행위는 기원 조사를 위한 국제 협력을 심각하게 간섭•훼손하고, 각국이 코로나19와 싸워 생명을 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기원 추적은 정보 요원이 아닌 과학자에 의존해야 하고, 대항을 부추기고 대립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 연대 협력의 길을 걸어야 하며, 일부 국가의 뜻에 따라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못박았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이미 두 번이나 WHO 전문가를 중국에 초청해 기원 조사에 협력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기원 추적 조사는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 관계되므로 다른 나라도 중국처럼 WHO 전문가를 초청해 기원 조사를 진행해 국제사회의 우려에 성실하게 답하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 등 소수 국가에 정치화를 즉각 중단하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정치적 목적의 음모를 위해 국제 기원 조사 협력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人民网, 2021.6.1.)